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1서4장 9절

통 권 _ 제 203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3월 11일

함즐함울

www.pcltv.org

1-13구역의 첫 구역모임



“행복한 구역모임을 시작합니다!”

2007 주님의교회 구역모임이 긴 겨울 방학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했다. 지난 주 수요일 수요일예배 후에 첫 구역장모임에는 담당교역자와 구역장들이 모여 심방과 구역의 경조사 등 구역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며 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도를 위해 선출된 구역장과 권찰들은 구역원들의 사정을 살피고 기도하며 구역모임을 인도하게 된다. 또한 지난 주 금요일을 전후로 구역가정을 중심으로 모여 새로운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주님의교회 구역모임은 금요일 저녁에 인근 지역에 사는 구역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평일 오전에 교회 혹은 가정에서 모이는 여성 구역,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구역들도 있다.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주일예배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구역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일은 물론 아니다. 또한 성격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역모임은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주일예배가 회중 개개인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구역모임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이웃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웃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또한 나의 슬픔이 구역원의 기도제목이 되고 나의 기쁨이 구역식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성도들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7월초까지 진행되는 1학기 구역모임을 통해 이러한 은

혜를 경험하고 그 아름다운 결실이 교구수련회를 통해 맺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령목사(홍보출판 담당)

양육클래스 일제히 개강

눈물로 기도하는 기드온의 용사양성을 위해
/ 임직자 추천의 기준삼아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뜨거움과 눈물로 사도들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을 본받기 위해 본 교회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기드온의 용사를 기르기 위한 양육 클래스 과정을 3월 4일(주일)부터 7월 6일(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각 과정은 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가 강의를 맡고 있다. 원하는 강의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지만 필수과목 이수능 부서/팀장 임명 및 임직자 선거 추천의 기준이 된다.

양육과정은 100은 만남, 200은 성숙, 300은 섬김, 400은 선교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수강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았지만 3월 한 달 동안은 직접 클래스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나 클래스별로 인원을 제한한 경우도 수 있다.

만남의 100과정은 15강좌로 14명의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인도 하고, 200과정은 본 교회 목회자가 중심으로 성도들의 말씀안에서의 성숙과 성장을 돕는다. 300섬김의 과정은 실제적인 봉사과 섬김으로의 연결을 권장하며 400과정은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선교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함즐함울 편집부

교회학교 수련회 3면

안수집사 등반모임 4면

로템나무

어머니

시골에 사시는 나의 늙은 어머니는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다. 신경통까지 앓고 계시는 어머니는 산에 들에 산재해 있는 약초를 캐서 달여 드신다.

작년 가을 쌀농사를 지은 후 정산을 해 보았다. 쌀값이 하락하고 이중곡가제도가 없어져 농사를 지어도 별 소득이 없었다. 힘이 드신다고 식량할 것만 지었다는데 쌀로 25가마를 거두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정도이다. 직불제배 보조금까지 합쳐서 375만원의 수입이었는데 부대비용을 빼니 결국 175만원의 이익이 생겼다.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에 난 몹시 화가 났다. 내가 생활비를 더 보낼테니까 농사짓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하하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다. ‘나와 네 아버지는 이제 칠순을 넘긴지 오래다. 내가 농사짓는다고 몸을 움직이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논 갈아 달라, 농약해 달라, 추수해 달라, 부탁하며 땀을 흘리며 지을하니까 동네 사람이 우리를 보면 말을 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파먹으면 누가 우리를 사람이라 하겠니...’

어머니의 이 말씀은 신앙생활마저 편하게 하려는 나의 게으름을 깨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태원 기자

※환경교실수강생 모집※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교회와 여성실터 정보영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유미호실장 등이 환경과 생명에 관련한 실제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구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함께 꿈꾸는 세상을 위해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시 : 3월 21일(수)~4월 25일(수) 오전10:30~12:00 5주간
장소 : 3층 초등부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모집※

일 시 : 2007년 3.15(목)~5.17(목) 매주 목요일 오후 1시~5시
장 소 : 정동제일교회 사회교육관 아펜젤러홀 (시청역 덕수궁 뒤)
신 청 : 교회사무실(20명 선착순)
교 육 비 : 8만원(주님의교회 등록 교인은 4만원)
교육내용 : 기본교육 40시간과 발마사지 교육 10시간을 포함해 총 50시간 ※문의 : 김양자 장로(017-250-0670)

나눔의 물품을 모아주십시오!

작아서 못 읽는 의류, 신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아동 도서와 장난감 중고컴퓨터 등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모아 단 한 점이라도 주시면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필요한 곳에 전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자립 교회 등에서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시 : 3월 18일 장 소 : 1층 로비 주 관 : 복지선교부



예배의 현장 (3월 7일 수요일예배)

잃어버리셨습니까?



3월7일 수요일예배는 교회학교의 어와나를 맡고 있는 전미이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한다. 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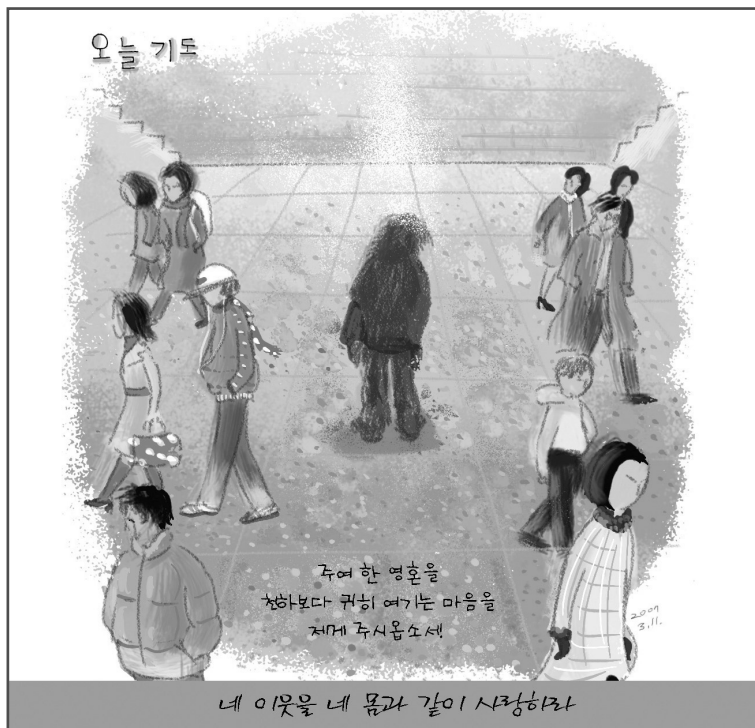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감은 어찌 말로 다하지 못한다. '아차' 하는 순간에 아이를 잃어버리곤 한다. 그때의 부모의 심정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 그 자체이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받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

한 그녀는 사흘 후가 돼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활에 바빠서 예수님을 잊고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체면만을 위해 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계시 마음의 자리를 우리만을 위한 행사에 내주지 않았는지, 아니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며 살아가곤 한다. 우리 내면의 성결함에서 예수님의 중심에 자리 잡는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행동하며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다. 전미이 전도사는 체면을 중시하고 경직된 어른들의 사회에서 그 순간에 충실한 12살의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 세상의 상황이나 명분 기득권을 중히 여기며 우리의 순수한 진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랑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찾기를 바란다. 또한 비본질적인 삶을 살며 본질적인 삶을 잊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이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메시지이다.

신형섭 기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구역모임



2월10일(토) 1교구 13구역은 22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여 신년 하례구역모임을 가졌다. 김용환, 윤종복 집사가 준비한 맛있는 저녁식사를 나누는 후 신년축하케익을 자르고 도회, 도연자매의 위십 축하 찬양공연을 보면서 기쁨과 은혜가 있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어 새로 구역식구가 된 이우풍집사가 가족의 환영과 교제의 시간 속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충만한 구역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산상철야기도

회와 등산으로 구역식구들의 신앙성장과 건강을 다지기로 약속했다.

또한 2월11일, 주일날 주방봉사에 참여한 구역식구들은 땀흘리는 수고를 통해 성도들에게 맛있는 국수 한 그릇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었다. 봉사를 마치고 함께 둘러 모인 구역식구들은 주님의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붙고 기도하리라 다짐했다.

기사제공:서정하집사(1-13)

나의신앙이야기

치유와 위로의 구역모임

15년전 주님께서 나를 찾아 오셨을 때의 그 첫사랑은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원히 불타오를 것만 같던 첫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 점차 식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 속에서 선데이 크리스찬의 생활이 그냥 만족스러웠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님의교회에 다닌다는 오만함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의 마음 속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교회에 나간다는, 그것도 주님의교회에 나간다는 자만과 우월감이 더 중요해져 있었습니다. 나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필요의 해결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어쩌면 당연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교회에 와서 설교듣는 것으로 족했으나 읽을 필요가 없었고, 교회사람들을 모르니 신경 쓸 일이 없었고,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니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귀찮은 일 없어 좋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상태로 그냥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는 결혼과 함께 많은 변화속으로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냥 막연히 결혼은 기독교인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람 대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신혼 집을 본가와는 거리가 먼 돈암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게 걸려온 전화 한통이 제 신앙생활의 일대 전환점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역예배는 귀찮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꿈도 꾸지 않았고, 교회생활은 없이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족했던 저에게 구역 권찰님이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역모임을 알려 주시는 전화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간없어요" 등등 이 핑계 저 핑계로 모면하였을 법 한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는 달리 입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가겠다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금요일 밤 아홉시. 위치는 어느 장애인 복지관인데 중랑천 옆에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어쨌든 가기 싫은 걸음이지만 차를 몰고 갔습니다. 원래 낯선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성격에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생소하고, 성경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봤으니 지식은 없고, 게다가 왜 이리 늦게 끝나는지..정말 이런 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 다. 열두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오며 '다음부터 안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권찰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고,

우여곡절을 반복하다 보니 나름대로 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공부했었는데 성경에 문의한이던 제게 많은 도움도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해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던 저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놓으셨습니다. 구역모임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던지 사정상 구역모임한 두 번 빠지고 나면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구역모임은 내가 사모하는 모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역모임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며, 고난을 극복케 하는 용기가 있었고, 곧 없어져 버릴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가 있었으며, 내 맘대로의 세상에선 느끼지 못하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역식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기에 부끄러운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과거를 살 수 있었으며, 사랑해 주실 것이기에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와 찬양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민병준 집사 (8-8)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2월23일부터 2월25일까지 2박3일 간 강화도 성산 수련원에서 교사 및 중·고등부 형제, 자매 200여명이 함께 모여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에 참석한 가족들은 함께 예배드리며 친교는 물론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다음 글은 교회에서 중등1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경순 전도사와 고등부 최현일 교사의 수련회 후기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중등1부 가족들...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중등1부를 섬기게 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일 날 한 시간의 만남으로는 중등1부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외우기에는 나의 기억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였던 중등1부 가족들의 신실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1부 가족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아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밤 함께 '홍삼'을 외쳤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와 마박이 춤과 배트맨 등등 귀엽고 깜찍한 모션을 보여주었던 남자 친구들에게 그대로 인하여 많이 행복했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캠프를 위해 달려와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등1부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들이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경순 전도사 (중등1부)



중등1, 2부와 고등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25일까지 강화도 성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희생(롬12:1)'을 주제로 2박3일간의 일정을 보낸 청소년들은 Q.T., 기질테스트, 서바이벌게임과 집회 등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었다. 수련회에 오기까지 중고등부 교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다. 수련회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땀과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 원했던 한 명의 교사로서 나는 수련회 기간 중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찬양 가운데, 프로그램의 모든 일정 중에, 수련회 가운데 형성되었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셨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외의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이 찾은 웃음과 평안이다. 수련회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찾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의든 타의든 학업의 압박 속에 시달리던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떠나 공동체가 함께 이뤄가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것 같았다.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욱 노력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그들이 밟아가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청소년을 섬기는 한 교사로서, 그들이 바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부는 청소년기에 꼭 거쳐야 하는 다양한 경험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뿐 아니라 즐거움을 항상 잊지 않고, 평안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한다.

최현일(고등부교사)

청년부 수련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따라...



청년공동체에서는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2/22(목)~2/2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겨울수련회를 열었다. 전날 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 돈독해진 우정 속에 밤새 얘기를 나눴는지 눈은 반쯤 감겨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열심히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었다.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어색해졌던 관계는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어느새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기 시작했다. 특강시간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부족했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나, 우리와 나, 나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수련회의 백미는 역시 저녁집회였다. 한국교회에서 청년공동체를 섬기는 강사목사님들이 초대되어 청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저녁집회에서는 윤은성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수련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함께 뜨거운 성령의 불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일정은 주일 아침 기도원을 나서면서 끝났지만 그 열

기는 주일예배까지 이어졌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지체들이 혹시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잘 모르지만 힘들어 보이는 지체를 찾아가 그 옆에 앉아주는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앉아있던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 예배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소망을 잃어가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새 힘을 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매주 책임감을 느낀 청년지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생명을 구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우리 청년공동체 지체들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해 본다.

김재환 기자

방과후학교 미술반

‘르네 마그리트’와 ‘권영우’ 전시회 관람



방과후학교 미술반은 2월28일(수요일) 오후 봄방학을 맞이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에서 열리고 있는 초현실주의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와 종이 추상화가 ‘권영우’의 전시를 관람하며 특별한 미술감상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9명의 학생과 2명의 인솔교사가 함께했고 그 동안 실기교육을 통한 표현중심의 미술수업에서 탈피하여 특별한 두 작가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는 우리 시대 대중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영감을 준 작가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숨겨져 있는 환상을 우리에게 찾아준 작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리는 철학자이자 시인인 마그리트를 만날 수 있었던 이번 관람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면적인 성찰과 사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평생 동안 전통적인 소재인 종이와 일상의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오브제로 채택해온 권영우작가의 작품을 통해서도 작가가 채

료에 대해 취하는 진지한 태도를 학생들이 실제 미술작업에서 응용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역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제공해 주었다. 미술반 학생들은 두 개의 전시회 관람을 통해 미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미술활동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해산했다.

기사제공: 황아람(방과후학교 미술교사)

Miss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갈 예정입니다"

꽃샘추위로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늘은 꽃샘추위와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흔히 기상예보 아나운서들이 “꽃샘추위가 물러갈 예정입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에는 '예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정'은 도착할 예정, 떠날 예정,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다 '처럼 씁니다. 곧, 주체가 사람이거나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꽃샘추위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꽃샘추위가 물러갈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꽃샘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덧붙여 '추위가 누그러져, 추위가 풀려'도 좋은 표현입니다.

이정에 기자

안수집사등반모임 때가 되어 돌아나는 새싹을 보며...



독히 했다. 때가 되어 돌아나는 새싹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섭리를 다시금 느끼면서 참석자

지난 3월 3일(토) 오후 3시 30분에 일원동 소재 로봇고교 정문 앞에서 안수집사회 회장 김동일 안수집사의 주선으로 이창현 목사를 비롯한 25명이 만나 대모산 등반을 하였다.

이번 모임에는 부부동반 참석자가 많아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하였고, 부부가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두 시간 정도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세상 이야기와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회원들과 친교를 돈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등반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모였고 이창현 목사의 감사의 기도와 김동일 안수집사의 격려의 인사를 끝으로 안수집사 친교 등반모임을 마쳤다.

향후 계획한 사업은 4월 중순에 안수집사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이다. 안수집사는 물론 피택 안수집사들도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기회를 갖자고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은 추후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김기용 함글함글 팀장)

차량 안내부 봄나들이 전체 친교모임 가져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2월 마지막 주 주일(25일), 목직한 오리털 잠바를 벗고 1-3부까지 수고하는 차량안내부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서 조그마한 모임을 가졌다.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느끼며 사랑으로 친교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봉사사역본부 본부장인 박호길 장로는 모임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차량 안내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렸고 이어서 봉사를 할 때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더 생각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점점 더 많아지는 차량과 한정된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이며 원활한 방법으로 주차안내를 하기 위해 부원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차량 주차안내 봉사를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성도들에게 공지가 필요한 내용들을 차후 함글함글, 홈페이지, 예매 때 영상 홍보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달하여 알리기로 했다.

밀려드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봉사인원의 확충을 위해 서로 고민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임을 마쳤다.

기사제공:차량안내부

알려드립니다

주차단속 안내

주일에 학교 정문 앞 좌, 우측 도로변에 주차단속을 실시 중이오니 성도들께서는 교회 내 주차구역이나 운동장에 주차하시고 부득이 외부에 주차 하실 때는 학교 측면 담장 옆쪽으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6여선교회 모여라! (1968년 이후 출생한 기혼여성)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여선교회 연합모임 후 지하 식당에서 6여선교회가 모입니다. 선교회 호라성화를 위해 맛있는 음식과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4부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로서, 아래의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의 동역자를 갖기 원하는 분입니다. 찬양연습 및 찬양시간은 매주일 오후12시부터 오후4시 10분까지이며, 4부예배시간에는 예배찬양대로 찬양을 합니다.

※문의 : 총무(이성규,010-5503-5512), 대장(김익환,016-402-3447)

바울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바울사도와 관련한 성지, 터키와 그리스를 10일의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기간은 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이며 경비는 1인당 259만원입니다. ※문의: 하승락 집사(010-3994-1206)

양육클래스 시간표

과정	과목		강사	시간	장소	
100만남	새가족모임	필수	양육교사	주일 2,3부예배 후	2층중수련실1,2,3	
	세례교육		정희성	주일 13:30	3층초등부실	
	구역모임		구역이끄미	주중	구 역 별	
	은혜로운 먹그림		정남희	수 10:30~12:30	지하작은식당	
	생활꽃꽃이		최진옥	목 10:30~12:00	지하작은식당	
	말씀서예		정도일	주일 13:30~15:00	지하작은식당	
	하프타임강좌		다수	화 14:00~15:30	3층초등부실	
	생활공예, 두루뭉수리		함혜련	화 10:30~12:00	지하썬네실	
	쉽고 재미있는 기초반주법		최영순	목 10:00~11:40	지하썬네실	
	현대사회와 레크레이션		정요섭	화 10:30~12:00	지하유치부실	
200성숙	환경강좌		외부강사	수 10:30~12:00	5층세미나1실	
	컬트이야기		김경순	목 10:30~12:00	지하대학의방	
	중국어문화의 이해		김상화	주일 13:30~15:00	4층대학의방	
	사진학교		최재호	주일 13:30~15:00	2층중수련8실	
	수화교실		최영숙	주일 14:00~15:30	2층고수련8실	
	구역성경의 이해	필수	이호	화 10:30~12:00	3층초등부실	
	신약개요		김현영	목 10:30~12:00	5층찬양연습실	
	출발, 그리스도인		정영환	주일 13:30~15:00	3층소년부실	
	나의 은사와 소명찾기		우동원	목 10:30~12:00	3층초등부실	
	성경일독반		정영환	화 10:30~12:00	5층세미나1실	
해답을 찾는 이들의 모임		이창현	주일 13:30~15:00	5층세미나1실		
300성경	요한계시록 집중연구		박의일	화 10:30~12:00	지하찬양연습실	
	영어성경공부 Level 1		나현수	목 10:00~11:30	5층세미나2실	
	영어성경공부 Level 2	목 11:00~12:30				
	일본어성경 Level 1		신영숙	금 10:00~11:30	4층소회의실	
	일본어성경 Level 2	금 11:00~12:30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김광일	목 13:00~14:30	4층당회원실	
	요한의 눈으로 본 예수님		정희성	목 10:30~12:00	4층대학의실	
	구역론		신화식	목 14:30~16:00	5층찬양연습실	
	400선교	피택자수련회	필수	교역자	추후공지	1박2일수련회
		구역이끄미모임		교구별	수요예배후	교구별장소
중보기도세미나			정영환	4월중시작	추후 확정	
400선교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습관		정요섭	목 10:30~12:00	5층세미나1실	
	선교학교	필수	손영익	토 17~19시	1층3집회실	
	해외단기선교		선교본부	7~8월중	해외	
	한국기독교선교사		윤은성	금 10:30~12:00	3층초등부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3월 한 달간, 과목별 해당시간, 장소로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house]이란 뜻이에요

양손을 펴 손끝을 맞대며 집모양을 만들면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이사[move], 혹은 이사한다는 뜻이에요

'집'을 만든 후 좌(우)에서 우(좌)로 이동하면 이사한다는 뜻이랍니다.